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는 전술이 필요하다. 쇠고기 협상에서도 통상 쟁점에만 집중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협상 전술을 펼쳤어야 했다.

셋째, 시간 부족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다.

협상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협상에 임하는 것과 시간에 쫓겨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협상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시간은 절대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개방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스스로 협상 시한을 짧게 설정함으로써 졸속 협상을 초래하였다. 시간에 쫓겨 협상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을 미국의 요구대로 합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합의 내용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등급 변경이 없는 한 쇠고기 수입은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 기준과 무관하게 광우병 위험 등 위생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관철해 협상을 이끌어냈다. 일본 정부처럼 미국 대표단과 맞서 '그런 불리한 조건은 절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며 서류를 내던지거나,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

년 국민에게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절하면, 미국 정부가 당장 WTO에 제소할 것이고, 다른 통상 보복 조치를 해 올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을 협상의 걸림돌로 취급했다. 국민의 반대와 민심을 마지노선으로 삼는 전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가며 '우리가 양보한 만큼 당신들도 양보하라'는 벼랑 끝 전술을 우리 정부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아예 써 보지도 못하고 합의를 해 버린 것이다.

넷째, 일본처럼 동맹 관계와 통상 이슈를 구분했어야 했다.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는 전술이 필요하다. 쇠고기 협상에서도 한·미 동맹의 관계와 통상 이슈를 분리시켜 한국이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쟁점에만 집중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협상 전술을 펼쳤어야 했다.

한국과 미국처럼 일본과 미국의 동맹 관계도 매우 굳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동맹 관계를 떠나 통상 이슈에 집중해 미국에게 수입 위생 조건 개정을 단호하게 요구했다. 실제 일본은 부시 정부 시절부터 미국에게 분명하게 안전을 담보하는 데이터가 불충분하며 최신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 필요한 검토를 모두 한 후에나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다만 역시 수입 과정에서 양국의 동맹 관계를 떠나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위배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미국 도축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엄격한 증명과 관리를 요구하고, 정부의 증명이 보증되는 사업장 가공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통상 이슈보다 한·미 동맹을 더욱 중시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미끼로 쇠고기 수입 개방을 밀어붙인 미국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QM**

※ 이 내용은 미국 쇠고기 수입 시장 협상에 대해 각종 매체에 나타난 견해를 필자의 협상학적 관점에서 기술한 것으로, 당시 통상 협상 관계자들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18 한국품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 주도하는 한국형 품질경쟁력 모색

• Editor | 노지호 기자 jiho@ksam.co.kr

2018년 한국품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5월 25일 더케이호텔 서울 별관에서 개최됐다. 학회 회원을 비롯해 기업 품질 실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품질 우수기업의 사례 발표와 각계 품질 관련 기관의 최근 이슈, 120편의 다양한 주제 논문 발표 및 경진대회가 열렸다. 이와 함께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 등 품질 우수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오프닝 기획세션으로 춘계학술대회의 시작을 알린 윤경석 LG전자 품질경영센터장은 LG

전자의 매력품질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고객의 요구 품질은 끊임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이 지속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해야만 고객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매력품질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LG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으로는 매력품질경영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부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각 사업별 품질 매력 요소를 개발하고 있고, 상품기획 및 제품 개발 단계부터 매력품질 목표를 설정해 고객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임팩트 한 요소를 제품에 담고 있으며, 또 각종 소비자 평가조사 기관 및



2018년 한국품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김연성 회장)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다채로운 품질 강연(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①, 윤경석 LG전자 품질경영센터장④)과 논문이 발표된 가운데, 품질 우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식⑤도 함께 열렸다.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에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②과 장기봉 마스터자동차회장③이 수상했고, CQC상은 고명석 한국남부발전 전무가, EQC상은 김홍철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이, EQM상은 김민철 한국수력원자력 팀장이, 품질경영학술상은 이상복 서경대학교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언론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변하는 소비 트렌트에 따른 맞춤형 매력품질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프닝 기획색션에 이어 개최된 춘계학술대회는 김연성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 회장은 최근 미국품질협회가 주최한 ‘2018 세계품질대회(WCQI)’에 다녀온 소감을 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보았다”며 “한국품질경영학회가 더욱 활발한 연구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데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기조연설은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이 ‘한국의 품질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연설했다. 이 회장은 먼저 이 시대의 ‘품질’을 “품질의 지능화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연결해 혁신적인 품질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품질 현황과 향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품질 현황은 제조업을 기

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기술 격차가 4년 정도 뒤쳐져 있고, 품질에 대한 글로벌 이미지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에 비해서는 기술력, 중국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 유럽에 비해서는 글로벌 이미지가 낮은 상황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품질 이미지를 글로벌 시장에 명확히 인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중국의 경우 ‘중국 제조 2025’를 목표로 정부 주도의 품질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더욱 적극적인 품질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향후 품질 정책 방향으로는 ‘Contents·Community·Capabilities’ 세 개 키워드를 제시했다. 먼저 Contents는 품질 데이터 및 기법, 역량에 대한 강화 및 제조와 서비스의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된 품질을 이뤄나가는 것으로, 기존 통계 분석 역량에 데이터 기술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이슈를 도출하고 확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unity로는 품질분임조 활동의 변화와 아시아퀄리티센터(AQC) 구축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스텝별 문제해결 프로세스로 진행되어 온 품질분임조 활동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즉실천이 가능한 실행 중심의 문제해결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칭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아시아퀄리티센터 구축은 “전 세계 주요 개발 국가 가운데 품질경쟁력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성장한 우리나라의 노하우에 관심을 갖는 곳이 많다”며 “이러한 관심이 품질 주도국으로 나아가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퀄리티센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 표준·품질 혁신의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에 축적되어 있는 품질 기법과 노하우를 디지털화해 활용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품질 방향을 만들어가는 Capabilities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또 이날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을 수상한 김

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품질경영 사례를 소개했다.

김 사장은 “HRO(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고신뢰조직) 구축을 목표로, 기본적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더해 ‘안전5중방호벽(안전한 환경·안전한 작업·위험요소 제거·안전체계 유지·실수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MaaS(Mobility as a Service) 등을 통한 ‘스마트한 지하철’, 각 지하철역을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간으로 혁신해 커뮤니티의 허브가 되는 ‘고품격 지하철’을 품질 방향으로 설정해 혁신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1965년 창립되어 올해로 53주년을 맞이한 한국품질경영학회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구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품질 4.0’의 학문적 정립과 실무적 적용 방안을 제시해나가고 있다. **QM**